

# 청정지역 호주식품이 선보입니다

주한 호주대사관 상무 참사관 캐머런 맥밀란

최근의 국내 경기를 감안해 각종 전시회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제1회 호주식품전을 개최했던 주한 호주대사관이 올해는 독자 행사 대신 서울식품전의 공동 참여를 표명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한 호주대사관 캐머런 맥밀란 참사관을 만나 한달 앞으로 다가온 행사 준비 상황을 들어보았다.

지난해 처음 열린 제1회 호주식품전은 호주 6개 주(州)에서 총 40여개의 식품회사가 참여한 대규모 전시회로 국내 외 식품 관련 업체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연인원 2,500여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된 호주식품전은 천연 호주산 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개인 사업자의 투자 상담이 활발하게 이뤄져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 되었다.

96년 퀸스랜드주가 자체적으로 개최했던 식품 전시회를 확대해 호주 유수의 식품회사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로 정착시킨 캐머런 맥밀란(36) 상무참사관은 올해 한국 경제가 침체에 놓여 있어 전시회 개최에 따른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식품전의 공동 참여를 결심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보다 한층 내실있는 행사로 발전된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특히 현재 한국에 진출하지 않은 업체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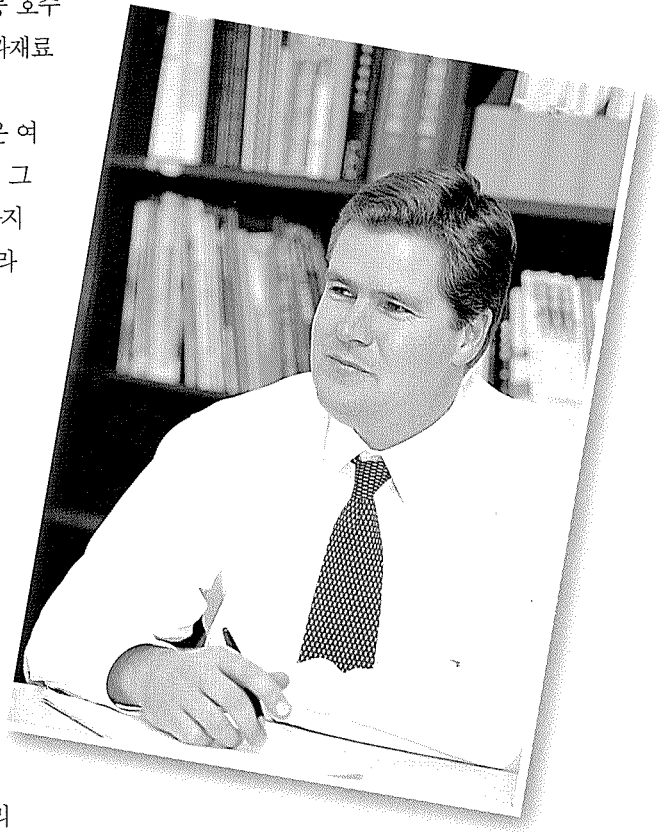
식품전을 기획하고 있는 캐머런 참사관은 지난해의 경우 농수산물이나 냉동식품의 비중이 높았으나 올해는 베이커리와 직접 관련된 업체의 참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육가공품을 비롯한 호텔용 식자재는 물론 설탕, 밀 등 호주의 주요 수출 품목이 대거 선을 보이게 됨으로써 국내 제과재료의 질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지만 호주 식품회사들은 여전히 한국을 가장 유망한 교역 대상국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의 미래를 낙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오히려 이런 불황기일수록 더욱 믿음직한 사업 파트너라는 사실을 한국 국민들에게 입증하고 싶습니다.”

가공 완제품과 호텔용 식자재 그리고 제과 원부재료 업체의 활발한 참여가 예상되는 호주 식품회사들은 서울식품전에 대비해 이미 활발한 홍보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해처럼 현장에서 직접 투자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불황기에 투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품 사업은 호주 정부가 가장 자랑하는 분야인 만큼 손색없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천연의 호주 식품과 발달된 식품가공 기술을 선보일 이번 전시회에 사업자 여러분의 많은 관람을 바랍니다.”

한편 호주대사관은 3월말부터 식품전이 끝나는 4월 중순까지 르네상스 호텔 등에서 스테이크 판촉회나 요리 경연대회 등 부대 행사를 개최해 호주식품에 대한 저변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식품업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각종 세미나가 함께 열린다. **이**



〈글/이종원〉